

# SK이노 ‘꿈의 배터리’ 개발 가속 800km 달리는 전기차 상용화 눈앞

〈한번 충전시〉

美 조지아공대 이승우 교수진 협력  
고무형태 고분자 고체 전해질 개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 박차

SK이노베이션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 공대  
이승우 교수진과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배터리에 적  
용되는 액체 형태 전해질을 고체로 바  
꾼 배터리를 말한다. 배터리 용량은 늘  
리면서 무게, 부피, 화재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미래 배터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아직 개발까지 넘어야 할 난  
제가 많아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데,  
SK이노베이션과 이 교수 연구진이 협  
업 체계를 갖춘 것이다.

이 교수는 KAIST와 공동으로 혁신적인  
고무 형태 고분자 고체 전해질을  
개발해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지에



SK이노베이션과 전고체 배터리 협력에 나서는 미국 조지아 공대 이승우 교수가 개발한 고체 전해질.

뛰어나면 배터리 내부에서 리튬이 나  
뭇가지처럼 뾰족하게 자라나는 ‘덴드  
라이트’로부터 전해질이 손상되지 않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온전도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고체 전해질을 구현하는 것이 난제로 꼽혀왔던 만큼 이 교수  
가 개발한 고체 전해질은 혁신적인 연구 성과로 평가 받는다. 이와 같은 기술을 도입하면 한 번 충전으로 현재 500km 가량인 전기자동차 주행거리가 800km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이노베이션은 기존에 독자적으로 확보해온 전고체 배터리 기술과 이승우 교수의 연구 성과를 더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은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이승우 교수진과 협력해 꿈의 전지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시대를 앞당겨 회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류의 편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지난 13일 논문이 소개되는 등 해당 분야의 석학이다.

이 교수는 개발한 고체 전해질은 기존 고체 전해질의 단점으로 꼽히던 이온전도도를 100배나 향상시킴과 동시에 고무와 같은 신축성까지 확보했다. 이온전도도는 배터리 내부에서 이온이 얼마나 잘 이동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이온전도도가 높아지면 배터리 내부에서 리튬 이온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 이는 곧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고체 전해질 신축성이

점검에 나섰다.

건설장비는 실외 노상에 세워 둘 수 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극저온 시 시동 불량과 작업 시 엔진부조, 떨림 등의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두 기업은 이번 흑한지 테스트를 통해 극한의 상황 속 건설장비 시동성과 작업 성능을 사전에 점검해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기계부문 지주사인 현대제뉴인 관계자는 “이번 합동 흑한지 테스트는 양사가 출시하는 장비들의 성능을 같은 기준으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뉴인은 작년 11월 양사의 품질을 더욱 끌어 올리기 위해 기술 본부 내 품질운영부문을 신설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 현대車그룹, 납품대금 1조4402억 조기지급

온누리상품권 74억 임직원에 지급  
설맞아 결연시설에 상생활동 나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설을 앞두고 납  
품대금 조기 지급과 온누리상품권 구  
매를 통해 상생활동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설 연휴를 앞두고 협  
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  
금 1조4402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  
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16일 밝  
혔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약 74억원  
을 구매해 그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  
는 한편, 설맞이 임직원 사회봉사 주간  
동안 결연시설 및 소외이웃 등을 대상  
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차·  
기아·현대모비스·현대건설·현대제철·  
현대위아 등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3000여개 협력사를 대  
상으로 진행된다. 협력사들은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26일 일찍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명절을 앞두고 상여  
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 협  
력사들의 자금 소요가 일시적으로 집  
중되는 부담을 해소하는 데 납품대금

조기 지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도 설  
이전에 2, 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설, 추석 명절 전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  
대금을 선지급해왔으며,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각각 1조8767억원, 1조2354  
억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의 납품  
제공한다.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  
자금이 2, 3차 협력사에도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협력사 임직원들이 따뜻한 명절  
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  
했다.

현대차그룹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 내  
수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전 온누리상품  
권 약 74억원을 구매할 예정이다. 현  
대차그룹은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각  
각 306억 원, 216억 원의 온누리상품  
권을 구매한 바 있다. 또 이번 설에도  
약 1만4800여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임직원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  
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 16개 계열사 임직  
원들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결연시  
설과 소외이웃에 온누리상품권과 지역  
상품권, 기부금, 설맞이 선물 등을 전달  
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 굴착기·휠로더 등 9대 ‘흑한지 테스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뉴인(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  
계부문) 계열사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와 현대건설기계가 그룹 편입 이후 처  
음으로 합동 품질 검사에 나섰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  
계는 지난 10~14일 강원도 철원에서  
건설장비 흑한지 테스트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흑한지 테스트는 저온의 극한  
환경에서 건설장비 부품 등이 제대로 구  
동되는지 확인하는 행사다. 현대두산인  
프라코어는 앞서 2014년 국내 업계 최  
초로 흑한지 테스트를 한 바 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휠로더  
5대와 현대건설기계의 동급 장비 4대  
가 이번 테스트에 투입됐고, 두 기업의  
건설기계 성능연구개발 임직원 15명이

점검에 나섰다.

건설장비는 실외 노상에 세워 둘 수  
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극저온 시 시동  
불량과 작업 시 엔진부조, 떨림 등의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두 기업은 이번 흑한지 테스트를 통  
해 극한의 상황 속 건설장비 시동성과  
작업 성능을 사전에 점검해 품질을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기계부문 지  
주사인 현대제뉴인 관계자는 “이번 합  
동 흑한지 테스트는 양사가 출시하는  
장비들의 성능을 같은 기준으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뉴인은 작년 11월 양사의  
품질을 더욱 끌어 올리기 위해 기술  
본부 내 품질운영부문을 신설한 바 있  
다.

/양성운 기자



홍콩 시내에 전시된 LG 스텐바이미.

/LG전자

## 홍콩 센트럴마켓에 ‘LG 스텐바이미’ 론칭

LG전자, 주방 등 4개 체험부스 마련

LG 스텐바이미가 해외 공략에 본격  
나섰다. LG전자는 최근 홍콩 센트럴  
마켓에서 LG 스텐바이미 론칭 행사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센트럴마켓은 홍콩 최초 재래 시장  
으로, 지난해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  
화공간을 탈바꿈했다. 홍콩 도시재생  
의 상징적 건물로 유동인구가 많다.

특히 현지 MZ세대가 자주 찾는 곳.  
LG전자는 거실, 주방과 같이 집 안 공  
간으로 꾸민 4개의 체험부스를 마련하  
고 LG 스텐바이미의 다양한 활용 사례  
를 소개했다. 관람객들은 각 공간별로  
다양한 시청 경험은 물론, 애플 에어플  
레이 기능을 활용해 모바일 기기와 화  
면을 연동하거나 집 안 가전의 작동상  
태를 확인하고 제어하는 등 제품을 자  
유롭게 체험하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무빙휠로 집 안 곳곳으로 옮겨  
가며 사용하거나 시청하는 콘텐츠에  
따라 화면을 세로로 돌려 활용하고, 또  
시청 자세에 맞춰 화면 위치를 자유롭  
게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의 차별화된 품  
팩터가 높은 관심을 받았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말 홍콩 최대  
가전 백화점인 브로드웨이와 포트리  
스, AV라이프 등 현지 가전매장에 LG  
스텐바이미를 진열하고 판매를 시작했  
다. 그 밖에 국가에도 출시를 확대할 예  
정이다.

유력 외신들도 LG 스텐바이미의 차  
별화된 품팩터에 호평을 쏟아내고 있  
다. 미국 톰스가이드는 LG 스텐바이미  
가 “획일적인 스마트 TV 시장에 예술적  
솜씨를 더한 TV”라고 말했다. 매서블은  
“스텐바이미는 모든 공간을 위한 하나의  
TV이며, LG의 가장 멋진 제품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김재웅 기자 juk@

## ‘비스포크 큐커’ 조리 식료품 한눈에

삼성전자 ‘큐커 식품관’ 오픈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큐커로 만드  
수 있는 식료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15일 삼성닷컴에 ‘큐커  
식품관’을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비스포크 큐커는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조리기다. 지난해 7  
월 출시돼 3만7000여개가 판매됐다. 특  
히 구매약정서비스인 ‘マイ 큐커 플랜’  
인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큐커 식품관  
을 오픈했다. CJ제일제당과 오뚜기, 앙  
트레 등 파트너사 15개 업체의 가정 간  
편식과 밀키트, 즉석밥을 한 곳에 모아  
간편하게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는 공  
간이다. 추후 입점 업체를 늘린다는 계  
획이다.

식품 구독 서비스 ‘マイ 큐커 플랜  
멤버십’도 선보였다. 비스포크 큐커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큐커 식품관에서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식료품을 구입  
하면 월 최대 1만 5천원 상당의 혜택을



삼성전자 큐커 식품관

/삼성전자

제공한다.

큐커 식품관 론칭 기념으로 15일부  
터 2월 28일까지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  
한다. 소비자에 따라 큐커 식품관이 추  
천하는 30여종의 ‘큐레이션 식품 패키  
지’를 선보였다.

/김재웅 기자

## 27만5000원 ‘갤럭시 엑스커버5’ 출시

삼성전자, ‘가성비’ 실속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가성비’를 극대화한 실  
속형 스마트폰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16일 ‘갤럭시 엑스커버  
5’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27만  
5000원이다.

엑스커버5는 LTE 스마트폰이다.  
5.3형 HD+ 디스플레이 작은 크기에 카  
메라도 전후면에 각각 500만화소, 1600  
만화소 하나씩만 탑재해 콤팩트하고 내

구성이 높다. IP68 방수방진 등급을 지  
원하고 고릴라 글라스6를 적용했다.

그러면서도 3000mAh 배터리로 사  
용 시간을 늘렸고, 15W 고속 충전도 지  
원한다. 듀얼 LED 플래시 기능으로 손  
전등처럼 사용할 수도 있게 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엑스커버5를 구  
매한 소비자에 영어 회화 플랫폼 ‘튜터  
링’ 수강권 할인 쿠폰과 1:1 초등화상  
영어 서비스 ‘튜터링 초등’ 수강권 할  
인 쿠폰을 제공한다.

/김재웅 기자